



대한잉크(주) 기술연구소

# 기술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중앙연구소와 연구연계

## 창립 50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 11월1일 창립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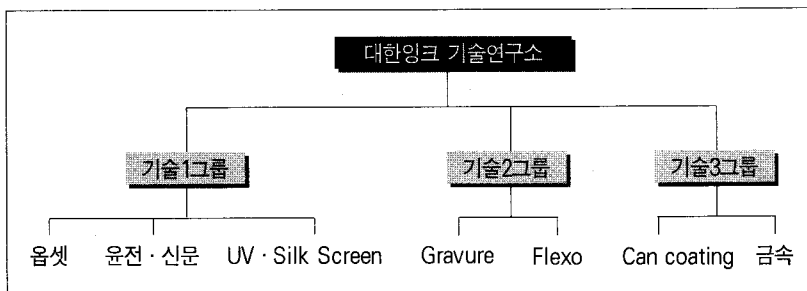
쌀쌀한 가을 기운을 몰아 서둘러 겨울을 재촉하는 듯 유난히 추웠던 어느 가을날 안양에 위치한 대한잉크를 방문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커다란 프랭카드가 쉽게 대한페인트 잉크임을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50년이라는 숫자가 웬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대한페인트·잉크의 규모에서 뿐만이 아닌 그간의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지켜온 신뢰 때문일 것이다.

9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페인트 그룹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밝고 풍요로운 색채 만들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업종다각화로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향하는 제2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잉크생산업

(표1) 연구소 조직



▲ 안양 공장내에 중앙연구소와 함께 자리잡고 있는 대한잉크 기술연구소

체인 대한은 해방직후 국산잉크 개발, 우리 교과서와 지폐를 우리기술로 찍어낸 이래 잉크산업의 집념어린 외길을 걸으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포장에 사용되는 그라비아잉크는 인쇄적성과 가공성, 무독성, 무공해성이 중요한데 대한잉크의 제품

은 가공식품의 포장에서부터 일반 경포장, 산업용 중포장에 이르기까지 인쇄에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효용성과 물성을 갖추고 고속 인쇄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최대의 인쇄효과를 내고 있어 연포장업계에서 이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각종 금속잉크를 자체 개발하였음은 물론 각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신용있는 잉크로서 다양한 색상과 선명한 색채, 우수한 가공성과 부착성 등 언제나 제조와 시험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상적인 금속코팅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오프셋잉크와 스크린 잉크, 수지등도 대한의 주요 생산품이다.

[표 2] 향후 개발 추진 아이템

옵셋팀	고속인쇄 잉크 고정채선 잉크 무공해 잉크
그라비아-플렉소팀	Non-Tune Type 잉크 수성그라비아 잉크 필름용 후렉소 잉크
금속팀	수성잉크
개발팀	특수기능 잉크 개발 잉크용 수지개발

“국내 최초의 국산인쇄 잉크 생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대한잉크는 71년에 이미 대일본잉크 화학(주)와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했으며 경영합리화를 단행, 사업부제를 일찌기 도입하였습니다”라고 이종문 부장은 말을 열었다.

대한잉크는 올 1월 그룹이 조직을 세분화, 전문화하기 위해 잉크와 페인트를 분리시킴에 따라 연구소도 사실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나 실험설비, 인력문제 등으로 완전한 분리보다는 서로 협력상태라고 한다. 대한잉크 총인원 200여 명 가운데 연구원이 32명으로 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 동시에 현업에 종사하여 기술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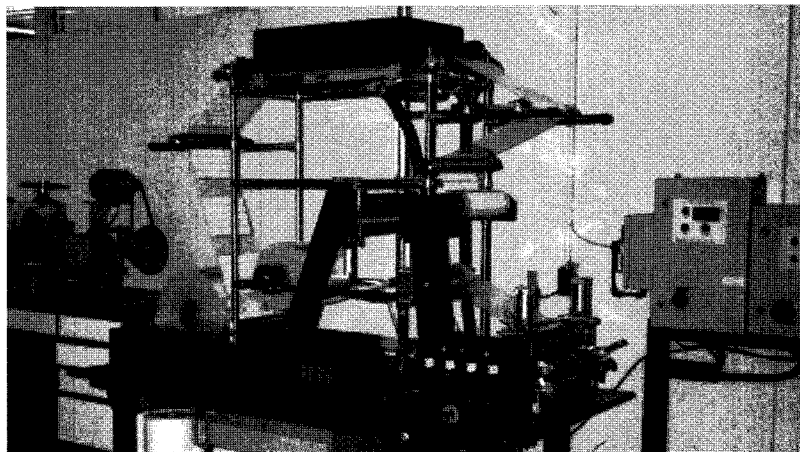
### 3개의 기술그룹 1개 연구그룹

기술그룹 3개와 연구그룹 1개로 이루어진 잉크연구소는 서적잉크와 관련된 옵셋과 윤전·신문을 연구하는 기술 1그룹과, 연포장분야인 그라비아와 플렉소 연구분야인 기술 2그룹, 캔코팅·금속 잉크를 연구하는 기술 3그룹, 연구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그룹은 대한페인트 잉크기술연구소의 잉크수지연구팀과 협력하



◀ 대한잉크 기술연구소는 중앙연구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연구소 분석실의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모습).



▲ 대한잉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는 인쇄실의 인쇄기

여 공동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외 인쇄실은 자체 개발된 잉크를 직접 테스트하는 부서다.

“자사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옵셋잉크는 1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선진국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특수분야에서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포장인쇄는 일본의 스타일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인쇄수준은 일본과 비슷하며 미국의

경우 플렉소 인쇄경향이 짙은 반면 일본은 그라비아에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플렉소가 그라비아에 비해 인쇄질이 떨어진다는 것만 소비자들이 감안한다면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플렉소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윤봉호 차장은 실질적으로 많은 연포장용 잉크연구에 참여해온 장본인이다. 윤 차장은 또한 플렉소가 정밀한 인쇄가 요구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품

종 소로트작업에 용이하고 제판이나 인쇄비용이 싼 장점이 있어 국내에는 밀크카톤팩, 쇼핑백, 농수산물 케이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기능성 특수잉크 개발 서둘러야

잉크산업은 전체적인 시장경기와 같이 성장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가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 국내에도 과자류 수입이 일부되고 있어 국내 과자메이커들이 위축되고 있으며 아이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가 다른 제품에 밀려 지속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업부 이재연 부장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인쇄수출시장을 동남아쪽으로 빼앗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수 분야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포장쪽은 레토르트 포장 등 고기능성이 부여된 포장산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그곳에 들어가는 잉크도 고기능성 잉크, 즉 내열



▲ 대한잉크의 주역인 연구소 이종문부장, 영업부 이재연부장, 연구소 윤봉호 차장 (오른쪽부터)

성, 내 내용물성이 요구되는 잉크가 확대될 전망으로, 잉크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력이 있는 메이커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최근 업계의 동향을 덧붙였다.

최근 과자류포장에 있어 톨루엔이 첨가되어 인체에 해롭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대한잉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non-Toluene Type을 개발·완료한 상태며 곧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잉크는 자신의 능력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복지후생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종업원들도 평생일터의 주인정신으로 가득차 중

합잉크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기술연구소도 신기술·신제품 개발의 산실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한잉크는 현재 15% 정도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수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잉크생산량이 7천3백톤이었는데 금년에는 9천톤을 목표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무리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가 많아 더욱더 든든한 대한잉크는 독립과 함께 최고의 잉크 제조업체로서 명성을 세계로 떨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창립50주년을 맞아 대한잉크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과 우수사원에 포상 등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벌였는데 국내외를 통털어 창업자가 50주년을 맞는 일은 극히 드문일이라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욱 클 것이다. ☐

이선하 기자



▲ 기술연구소내 연구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여기저기 인쇄된 용지들이 책상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연구소 분위기를 더해준다.

## 일반사원서 최고경영인에 이르러 중앙연구소와 협조체제 이루며 연구소 운영

일반 샐러리맨들의 꿈은 자신이 꿈을 키운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이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다.

국내 잉크산업을 이끌어온 대한잉크(주)의 서경석 사장은 지난 60년에 입사하여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오른 케이스다.

그간 대한잉크페인트의 부사장까지 역임하고 작년 4월 대한잉크와 페인트가 분리되면서 대표로 취임하게 된 서 사장은 “우리나라 산업이 제3공화국 시절

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국가산업 발전과 가장 밀접한 페인트잉크 산업도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1년에는 대일본잉크화학주식회사와 기술제휴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하였고 이것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진기술을 도입한 예이며 유저가 요구하는 품질의 잉크를 제조공급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표자라는 자리가 그 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하는 대표 사원일뿐, 특별한 경영능력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라고 일축하는 서 사장은 종업원의 대표라는 사실을 재삼 강조했다.

“사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고 저 자신도 오랜 사원생활을 통해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이므로 그간 겪어온 경험이 사원들에게 때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보람됩니다”라며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회사에 대한 애착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경영자로서 강조하는 것은 시대의 감각에 맞는 제




▲ 평직원으로 입사하여 최고경영인의 위치에 오른 대한잉크 서경석 사장

품을 생산하는 것과 유저들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 납품기한 맞추기, 최상의 제품공급이며 다행히 대한잉크는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좋은 직장은 인재를 빼앗기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상당한 장기근속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한의 비결은 자녀의 학자금을 100%지원하는 등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장기근속자들로부터 신입사원들이 기술을

전수받아 기술의 맥을 잇고 있으며 이렇듯 축적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현재는 대한페인트에 중앙연구소가 있고 중앙연구소에서 수지와 기초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잉크연구소에서는 순수한 제품을 가지고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과 유저회사들의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 체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페인트연구소와 조화를 이뤄가면서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연구방향도 작업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대한페인트·잉크(주)의 모체는 잉크이고 해방되면서 찍어낸 지폐와 교과서를 대한이 만든 잉크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대한가족들로 하여금 국내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며 그것이 곧 대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선하 기자